

#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근무일과 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

Time allocation of a dual-earner working group with preschool children  
on working and nonworking day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김 외 숙\*\*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 수 송 혜 립\*\*\*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 수 조 희 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외래강사 김 주 희

Dep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Kim, Oisook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lsan University  
*Professor* Song, Hyerim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Professor* Cho, Heekeum

Dep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structor* Kim, Jooh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분석 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활용한 한국인의 삶 심층분석” 연구용역 산출물이며, 통계청의 동의를 받아 투고/발표하는 내용임

\*\* 주저자: 김외숙(kimos@knou.ac.kr)

\*\*\* 교신저자: 송혜림(hrsong@ulsan.ac.kr)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time use of a dual-earner working group with preschool children on working and nonworking days using 2014 time-use survey dat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KOSTAT). We collected the time-use data recorded in a 2,158 time diary. We divided the time use into 4 parts ; paid work, household labor work (including caring work), leisure and living essential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we used SPSS 18.0 packages, i.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Duncan test and regression for the impact off the independent factors. The results verified gender differences in time use and recognized the usefulness of the time-allocation analysis for the diagnosis of Work and Life Balance(WLB). In the conclusion, we suggest increasing men's time allocation for household labor as a crucial solution to the WLB of dual-earner working groups. And the follow-up study should include th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time allocation of dual-earner groups, such as type of labor and job and children's ages.

Key Words : 맞벌이(dual-earner working group), 생활시간배분(time use), 미취학자녀 (preschool children)

I. 서론

본 연구는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현상에 주목, 맞벌이 가정의 일상생활을 시간배분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통계청이 5년마다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 결과는 하루 24시간의 생활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나타내는 유용한 자료이다. 생활시간조사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연구하고 국가의 복지정책 수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손애리, 2000), 하루 주어진 24시간이 어떤 활동에 얼마큼 배분되는가는 생활양식,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시간배분을 통해 다양한 집단의 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맞벌이 가정은 직장노동과 돌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시간빈곤, 시간부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앞으로 맞벌이 가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들 집단의 생활시

간배분에 대한 연구는 맞벌이 가정의 일상생활을 세밀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겪는 일-생활의 불균형이나 시간갈등 등의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출근을 하는 근무일에는 직업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시간, 즉 자기유지와 생활필수, 여가, 가족원돌봄과 가사 등의 시간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며, 비근무일의 경우에는 직업노동시간이 없고 그 대신 나머지 생활영역에서의 시간배분 양상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배분 분석을 통해 균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맞벌이 집단이 겪는 일상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성별차이나 근무일/비근무일의 차이 등을 포착함으로써 일하는 집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 있어 시간 사용은 핵심적인 기제가 되는 바, 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배분되는 시간량을 중심으로 일-생활 균형 상태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주희·이기영, 2015).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한 연구(이승미·이현아, 2011) 에서도 생활시

간구조를 통해 남녀 간 역할분담구조를 파악하고 나아가 일가정양립 실태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루 24시간이 주어진 시간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이 많으면 그 만큼 다른 영역에 배분되는 시간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간사용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생활시간배분에 대한 연구는 대상 집단의 일-생활 균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한편 맞벌이 가정의 생활시간배분이나 일생활의 균형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특히 영유아기 자녀, 미취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소영·진미정, 2015; 송혜림, 2014; 이재림·손서희, 2013). 전생애주기에 있어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부담이 매우 크며,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직장노동과 자녀돌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시간자원의 부족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미취학기 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직업노동-가사노동(가족원 돌봄 포함)-여가-생활필수 등 네 가지 생활영역에 배분된 시간량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특히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더 증가할 맞벌이 집단의 생활실태, 특히 시간빈곤, 시간부족 등의 현상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시간배분을 분석함으로써, 근무일의 직업노동시간이 비근무일에 어떤 생활영역으로 배분되는지, 성별 차이는 어떠한지 등을 함께 밝힘으로서 생활시간배분 연구에서 젠더의 영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일-생활 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맞벌이 집단의 생활시간배분

맞벌이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관점을 강조하는데, 시간배분론과 젠더효과이론이 그것이다. 시간배분론은 가계 단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젠더효과이론은 사회의 기대에 따른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김주희·이기영, 2015). 김진옥·최영준(2012)은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 가구 내에서 배분되는 일-가족 시간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 지난 10년간 이중노동부담의 비중은 감소하고 협조적 적응 유형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통적인 성분업에 고착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맞벌이 가정의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젠더효과이론의 가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 집단의 생활시간사용 및 배분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임금노동, 돌봄, 여가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 대한 시간배분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성별 차이가 명확하게 발견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론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생활시간배분이 일-생활의 균형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맞벌이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의 성별 차이는 곧 남녀 간 일-생활 균형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간시간사용조사(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를 사용하여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김진옥·고은주, 2014)에 따르면, 그동안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를 설명해 왔던 주요 요인들, 예컨대 젠더, 상대적 자원, 시간가용성, 소득계층 등을 독립변수로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젠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OECD가 매년 보고하는 삶의 질 보고서(How's life? 2015)에서도 일생활의 균형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척도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데, 일생활의 균형을 분석함에 있어 젠더 차이가 가장 분명한 특징이라는 점, 한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여가시간/개인유지 시간의 차이가 가장 큰 국가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간배분 연구에 있어 성별 차이에 주목하여 나타나는 결과들과 그 함의점을 도출하여 성별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연구(문숙재·윤소영, 2003)에서도 평일과 주말의 시간사용구조가 활용영역별로 남편과 아내 간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밝혀내었으며, 주은선(2014)의 연구에서도 맞벌이 집단의 시간배분에 있어 젠더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맞벌이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에 있어 성별 차이에 주목할 때, 특히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직업노동시간은 짧지만 가사노동시간은 훨씬 길기 때문에 총노동시간은 남성보다 많다는 사실은 이들 집단의 여가시간이나 개인유지시간의 부족을 야기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생활시간배분의 불균형성, 나아가 일-생활의 갈등과 같은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맞벌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건강영향을 분석한 김동식·김영택·정진주·최인선(2013)의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시간의 불균형성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근로시간 단축,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가정 양립이나 일-생활 균형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을 보면, 초기에는 기혼취업여성의 돌

봄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 이중노동부담 등의 문제와 함께 이들 집단의 일-생활 불균형과 갈등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일-생활의 균형은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가족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고 이로써 부모권이나 가족생활권의 박탈을 경험하는 바, 남성집단의 일-생활 균형 혹은 갈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와 함께 남성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꾸준히 축적되어 오고 있다(송혜림, 2012). 남성의 가족역할 확대는 기존에 여성이 갖는 돌봄의 부담이 감소된다는 차원에서, 결국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생활 균형은 남성의 가족역할 참여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김외숙·조희금·송혜림, 2015). 심층면접을 통해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을 분석한 채화영과 이기영(2013)의 연구에 따르면, 육아기 맞벌이 여성의 경우 가정과 직장에서 오는 역할부담이 일·가정 양립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이 학습한 가부장적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현재 자신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고 가정에서 주도적 참여를 할 수 없는 점이 이들 집단의 일·가정 양립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통해 맞벌이를 하는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배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맞벌이 집단의 일·생활 균형 상태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 2. 통계청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동향<sup>1)</sup>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하여 제공하는 생활시간 자료는 1999년, 2004년, 2009년에 이어 2014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2014년 자료는 2015년에 공개된 바, 향후 2014년 시간자료를 사용한 다양한

1) 한국학술정보 사이트(www.kiss.kstudy.com)와 누리미디어(www.dbpia.co.kr)에서 생활시간, 통계청을 검색어로 논문 분석함

연구가 축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대상과 주제로 연구가 활성화되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시간 영역을 기준으로 구분할 때, 먼저 가사/돌봄노동시간과 관련하여, 1999년부터 2009년의 10년 간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를 연구한 조미라와 윤수경(2014)에 따르면 10년 간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였는데,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은 집안일시간의 증가폭이 크고,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은 자녀양육시간의 증가폭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을 탐색한 조성호(2016)의 연구는 2014년 생활시간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남편의 육아 및 가사시간은 아내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의 임금이 높고,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남편의 육아 및 가사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점, 시간배분의 상관관계에서 아내의 노동시간과 남편의 가사시간은 보완 관계에 있었으나, 아내와 남편의 가사시간은 대체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이창순, 2014)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부부의 경제적 능력, 유급노동시간, 젠더역할관의 주요 변인들을 중심으로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을 분석하였다. 역시 2009년 자료를 이용해 맞벌이 부부 가사시간 결정요인을 탐색한 주익현(2015a, b)의 경우, 남편에 대한 아내의 경제의존도와 남편의 가사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같은 자료(2009년)를 사용하여 맞벌이 가구의 시간배분과 이동수단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권기현·전명진, 2014)에서도 성별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맞벌이 가구의 아내가 남편보다 가사노동을 주중에는 6.7배, 주말에는 3.5배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게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녀의 생활시간구조를 분석한 이승미와 이현아(2011)의 연구결과도 생활시간구조에 있어 남녀 간 뚜렷한 차이를 밝히고 있다. 남성의 근무시간은 여성보다 많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보다 많아, 맞벌이라 하더라도 남성은 일 중심, 여성은 가정 중심의 성역할분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을 분석한 박은정과 이성림(2013)의 연구 결과 역시 자녀돌봄, 자녀와 함께 한 가사노동/여가 등의 영역에서 남편보다 부인이 사용한 시간량이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1999년 자료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손문금(2005)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시간사용에 있어 무급노동, 즉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는 다른 어떤 변수의 집단 간 차이보다 크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여가시간을 분석한 연구도 축적되어 있는데, 2004년 생활시간자료를 사용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을 분석한 연구(한영선·윤소영, 2009)는 평일과 주말의 시간 사용 양식에서의 명확한 차이를 밝히고 있다. 또한,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을 합한 총노동에 있어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한다는 점, 이로써 부인의 노동부담이 크다는 점, 전반적으로 여성의 여가시간이 남편의 여가시간보다 짧다는 점 등의 결과를 통해 성별 차이를 확인하고 있다. 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를 재구성하여 주5일 근무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직장인들의 여가스포츠 참가 비율, 평균시간, 그리고 생활시간대별 행위자 비율을 파악하고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문화관광부, 1986, 1989, 1994, 1997, 2000, 2003)와 비교 분석한 연구(조보성, 2006)에서는 주 5일 근무제가 직장인들의 여가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2004년 자료를 통해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김복수, 2011)도 있다. 특히 여가시간사용에 있어 성별 차이와 불평등을 분석한 연구(조미라, 2016)도 있는데, 연구 결과 1999년부터 2009년 유·무급노동시간을 합한 총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긴 노동시간, 짧은 여가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차이와 관련하여, 2004년과 2009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통근시간 결정요인에 있어 성별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한 연구(서미숙, 2016)에 따르면 통근시간은 비노동 시간과 음의 관계를 보이고 가계생산과 육아 및 돌봄에서 여성의 높은 가사부담 비중이 남성과의 통근시간 격차를 커지게 하는 요인이라는 결과를 통해 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이 성별 통근시간 격차의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가구책임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동훈, 이호진과 정민근(2011)의 경우, 1999, 2004, 2009년 자료를 활용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과 성별 변수를 사용하여 지난 10년 간의 시간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총소득이 시간부족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성역할태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주익현(2015a)은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시간부족감을 느낄 확률이 커진다는 점, 그러나 성역할태도가 평등할 경우 이러한 경향성은 역전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한편, 맞벌이 집단이나 남성근로자의 경우 노동시간, 특히 장시간노동시간으로 인해 시간부족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곧 다른 생활시간의 감소를 가져와 일과 생활의 불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동시간을 분석한 연구의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차승은(2011)의 경우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압박이 높아지면, 모든 측면에서 여가행위나 여가시간량은 감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999년과 2004년 자료를 통해 노동시간을 분석한 유성용(2008)의 연구 결과, 맞벌이 부부가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단지 평일만이 아니라 한 주 전체에 걸쳐서 노동시간에 의한 다른 생활시간에의 시간제약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2004년 자료를 통해 취업주부의 시장소득에 따른 생활시간을 분석한 연구(남수정·유현정, 2006)에 따르면 개인유지시간을 제외한 임금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양육시간, 개인여가시간, 이동시간 모두 소득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임금노동시간은 소득이 커질수록 증가하였고 가사노동시간은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시간사용실태를 분석한 연구로, 1999년 자료를 사용한 연구(정경희, 2001) 그리고 2009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노년층의 여가시간사용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지현진, 2012).

그 밖에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주부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이영환·이수재, 2007), 생활시간사용과 피로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최중후·이동희·소선하, 2006), 실업자의 교체 활동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탐색한 연구(장원봉, 200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형태를 분석한 연구(정계기, 2011) 등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이다.

이와 같이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생활과학을 비롯, 인구학, 노동(경제)학, 여성학, 산업학, 사회학, 인구학, 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주제와 대상이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가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

지에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2일 동안 직접 기입하는 방식(after-coded diary)으로 조사된 자료이다. 시간활용은 요일에 따라 상이하므로 원 자료에서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분리하여 자료가 집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나누어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공된 2일의 시간일지를 모두 활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 선정 시 지난 1주일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우선 추출하고, 그 중 맞벌이 가구에 속하면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개인을 추출하였다. 생활시간조사가 가구단위의 조사이지만 맞벌이 남성과 여성을 부부단위로 모두 포함할 수 없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생활필수시간을 살펴보고자 하였기에 맞벌이가구에 속할지라도 조사당시 휴가 및 일시휴직인 맞벌이 남성 또는 여성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생활시간조사가 가구단위의 조사이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조사당시 부재중이어서 조사가 안되었거나 응답의 누락으로 원자료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의 시간이 모두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에 맞벌이 가구에 속하는 남성과 여성이 부부단위가 되지 않더라도 조사에 응답한 맞벌이 남성 또는 여성이 있다면 모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농가의 경우 농업노동의 특성이 다른 산업과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이런 단계를 거쳐 최종 분석에 2,158개의 일지가 사용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상은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아닌, 미취학 자녀를 두고 맞벌이를 한다고 응답한 취업여성과 남성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무일과 비근무일로 나누어 생활시간배분의 상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바, 시간일지를 작성

한 날에 근무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근무일로, 쉬는 날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비근무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생활영역, 즉 유급노동-가사노동(돌봄 포함)-여가-생활필수에 배분된 시간량을 분석하고자 하는 바, 2014년 생활시간조사의 소분류를 재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유급노동에는 고용된 일 및 자영업, 구직활동, 학교활동, 학교활동외 학습, 출·퇴근 기타 일 관련이동, 학습관련이동을 포함하였으며, 가사노동에는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동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함께 사는 만 10세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그 외 가족 돌보기,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을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여가에는 참여활동, 자원봉사, 친분 있는 사람 돕기, 교제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종교활동, 문화 및 관광 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의례활동, 기타 여가활동, 기타 분류되지 않은 행동, 생활시간조사표 기입, 기타 미분류 행동,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기타 이동 관련 활동을 포함하였으며, 생활필수시간에는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 개인유지 관련 이동을 포함하였다.

분석에 SPSS Win 18.0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간배분실태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기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과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 영역별 시간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2014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본 연구에서 구성한 일-생활 균형 시간	2014년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	
	중분류/소분류	대분류
유급노동	고용된 일 및 자영업, 구직활동	일
	학교활동, 학교활동 외 학습	학습
	출·퇴근, 기타 일 관련 이동, 학습관련이동	이동
가사노동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관리, 애완동물 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가정관리
	함께 사는 만 10세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살지 않은 그 외 가족 돌보기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가정관리 관련 이동,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관련 이동	이동
	참여활동, 자원봉사, 친분 있는 사람 돕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종교활동, 문화 및 관광 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의례활동, 기타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기타 분류되지 않은 행동, 생활시간조사표 기입, 기타 미분류 행동	기타
여가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기타 이동 관련 활동	이동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 건강관리, 기타 개인유지 개인유지 관련 이동	개인유지 이동
생활필수		

#### IV. 분석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을 대상으로 추출한 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총 2,158개의 일지에 있어 남성(51.0%)과 여성

(49.0%)의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연령은 미취학자녀를 둔 집단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 총대상자 중에서 시간일지를 기록한 날이 근무일인 경우는 1,460개의 일지로 67.7%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하가 가장 많고,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일주일에 2일 휴무, 즉 주 5일 근무체에 해당되는 비율이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설계서 및 코드집에서 교육정도와 수학여부를 합산하여 형성하였음.(중졸이하: 11-15, 21-25,32-35/ 고졸이하: 31, 42-45, 52-55/ 대졸이하: 41, 51, 62-65/ 대학원이상: 61, 71-75)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전체 (2,158)	근무일(1,460)	
			근무일(1,460)	비근무일(698)
성별	남	1,100(51.0)	788(54.0)	312(44.7)
	여	1,058(49.0)	672(46.0)	386(55.3)
연령	20	146(6.8)	110(7.5)	36(5.2)
	30	1,530(70.9)	1,034(70.8)	496(71.1)
	40	474(22.0)	312(21.4)	162(23.2)
	50	8(0.4)	4(0.3)	4(0.6)
교육수준 <sup>2)</sup>	중졸이하	34(1.6)	24(1.6)	10(1.4)
	고졸이하	592(27.4)	417(28.6)	175(25.1)
	대졸이하	1,362(63.1)	924(63.3)	438(62.8)
	대학원이상	170(7.9)	95(6.5)	75(10.7)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258(12.0)	161(11.0)	97(13.9)
	100-200만원미만	606(28.1)	394(27.0)	212(30.4)
	200-300만원미만	630(29.2)	453(31.0)	177(25.4)
	300-400만원미만	380(17.6)	255(17.5)	125(17.9)
	400만원이상	284(13.2)	197(13.5)	87(12.5)
직업	관리전문직	700(32.4)	452(31.0)	248(35.5)
	사무직	616(28.5)	405(27.7)	211(30.2)
	서비스판매직	404(18.7)	278(19.0)	126(18.1)
	기능직	284(13.2)	206(14.1)	78(11.2)
	단순노무직	154(7.1)	119(8.2)	35(5.0)
종사상 지위	상용종사자	1,428(66.2)	978(67.0)	450(64.5)
	임시근로자	234(10.8)	141(9.7)	93(13.3)
	일용근로자	92(4.3)	56(3.8)	36(5.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2(6.6)	104(7.1)	38(5.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10(9.7)	140(9.6)	70(10.0)
	무급가족종사자	52(2.4)	41(2.8)	11(1.6)
정기 휴일	1주일에 1일	410(19.0)	330(22.6)	80(11.5)
	1주일에 1일&토요격주	128(5.9)	89(6.1)	39(5.6)
	일주일에 2일	1,272(58.9)	802(54.9)	470(67.3)
	2주마다 1일	62(2.9)	54(3.7)	8(1.1)
	수시로 쉽	210(9.7)	132(9.0)	78(11.2)
	기타	76(3.5)	53(3.6)	23(3.3)

2.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집단의 근무일 생활 시간배분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을 대상으로 근무일과 비근무일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배분된 시간을 분석한 결과 중 먼저 근무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선행연구를 통해 맞벌이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에 있어 성별 격차를 강조한 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배분실태(근무일)

	남성(n=788)		여성(n=67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급노동	570	143	425	142
가사	65	82	248	129
총노동	636	124	672	102
여가	159	97	128	77
생활필수	646	87	639	84

근무일에 남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은 570분으로 평균적으로 9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425분에 비해 145분, 즉 2시간 이상 더 많다. 그러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 65분인 반면 여성의 경우 248분으로 훨씬 길며, 따라서 이 둘을 합한 총노동시간은 남성 636분, 여성 672분으로 여성이 더 많다. 2014년의 자료를 통해서도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시간과 생활필수시간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적기 때문에 근무일 생활시간배분에서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별 격차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다.

〈표 4〉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성별 생활시간배분 차이(근무일)

	남 (n=788)	여 (n=672)	격차 (남-여)	t 값
유급노동	570	425	145	19.473 ***
가사	65	248	183	-31.523 ***
총노동	636	672	36	-6.172 ***
여가	159	128	31	6.644 ***
생활필수	646	639	7	1.379

\* p<.05, \*\* p<.01, \*\*\* p<.001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필수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길다는 사실로부터 총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여가시간은 짧아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별격차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기 위해 시간 관련 주관적 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즉,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는 시간부족감, 시간피곤함, 삶의 만족도, 가사노동분담만족도, 시간활용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러한 주관적 변수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 시간 관련 주관적 인식의 성별 차이(근무일)

	남성	여성	t 값
시간부족감	3.36	3.42	-1.601
시간피곤함정도	3.41	3.41	-.210
삶의만족도	3.25	3.25	-.039
가사분담만족도	3.47	3.07	6.927 ***
시간활용만족도	2.98	3.10	-2.680 **

\* p<.05, \*\* p<.01, \*\*\* p<.001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부족감, 시간

피곤함 정도, 삶의 만족도, 가사분담 만족도, 시간 활용 만족도 중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가사분담만족도 그리고 시간활용만족도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가사분담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지만, 시간활용만족도는 더 높다. 그러므로 시간활용만족도는 가사분담만족도 뿐 아니라 다양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근무일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아래 표와 같다.

2014 생활시간조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수준, 직업, 종사상지위, 정기휴일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는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집단의 생활시간배분에 통계적으로 유

〈표 6〉 생활시간배분에 영향 미치는 변수 (근무일)

시 간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생활필수시간
상수항		576.718***	61.730*	155.385***	646.167***
성별(기준:남성)	여성	-94.065***	138.649***	-42.219***	-2.365
연령	연속변수	-.492	.151	.534	-.193
교육수준 (기준:고졸)	중졸	45.043	12.159	-37.370*	-19.831
	전문대 및 대졸	-8.793	13.481*	-11.952*	7.263
	대학원이상	-12.410	13.487	-5.735	4.658
월평균소득 (기준:100~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92.464***	93.806***	18.583	-18.925
	200-300만원미만	22.586*	-13.332	-8.475	-.779
	300-400만원미만	26.840*	-15.695	-16.502*	5.357
	400만원이상	50.879***	-40.255***	-6.925	-3.699
직업 (기준: 사무직)	관리전문직	-12.408	8.780	6.962	-3.334
	서비스판매직	.704	11.474	-5.994	-6.184
	기능직	27.546*	-15.127	-6.493	-5.926
	단순노무직	13.333	3.960	-7.904	-9.389
종사상지위 (기준: 상용종사자)	임시근로자	-64.517***	50.979***	13.778	-.240
	일용근로자	-64.365**	25.744	19.162	19.45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82.597***	30.769**	29.883**	21.94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2.355***	54.043***	3.601	4.711
	무급가족종사자	-27.071	26.304	-15.878	16.645
정기휴일 (기준: 일주일에 2일)	1주일에 1일	21.566*	-21.686**	-8.718	8.839
	1주일에 1일&토요일격주	7.439	6.226	-2.010	-11.655
	2주마다 1일	53.484**	-56.747***	-3.991	7.254
	수시로쉬	-47.995**	2.520	26.786**	18.690*
	기타	50.375**	-1.691	-30.338*	-18.345
F값		31.865***	68.099***	4.922***	1.407
Adj. R <sup>2</sup>		.327	.514	.058	.006

\* p<.05, \*\* p<.01, \*\*\* p<.001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T-test 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성별 변수는 유급노동 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집단에 비해 중졸 집단은 여가시간이 짧고,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은 가사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 소득에 포함되는 집단과 비교할 때 100만원 미만 집단의 유급노동시간이 짧고 가사노동시간은 길다. 유급노동시간은 200-300만원 미만 집단, 300-400만원미만 집단, 400만원 이상 집단이 모두 100-200만원 미만 소득 집단에 비해 더 길게 나타났다. 직업 변수에서는 유일하게 기능직의 경우 사무직보다 유급노동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종사상지위의 경우 상용종사자를 기준으로 할 때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집단, 즉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없는 자영업자 집단의 유급노동시간이 더 짧게 나타나, 종사상의 지위가 유급노동시간에 미치는 통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근로자, 고용원이 있는/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종사자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정기휴일 변수의 경우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할 때 1주일에 1일 쉬는 집단, 2주마다 1일 쉬는 집단, 기타 집단의 유급노동시간은 더 긴 반면 수시로 쉬는 집단의 유급노동시간은 더 짧게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은 주 5일 근무 집단에 비해 1주일에 1일 쉬는 집단, 2주마다 1일 쉬는 집단의 경우 더 짧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근무일 생활시간 배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집단의 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

근무일 분석에 이어, 비근무일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집단의 생활시간배분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7〉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생활시간배분실태(비근무일)

	남성(n=312)		여성(n=38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급노동	26	92	9	38
가사	198	146	383	161
총노동	224	156	392	160
여가	422	157	299	143
생활필수	794	116	749	111

비근무일에 감소된 유급노동시간이 어떤 생활 내용으로 분산되는지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사노동, 여가, 생활필수 영역의 시간량이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시간보다 여가시간이 더 많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가사노동시간이 여가시간보다 더 많아, 역시 비근무일에도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총노동시간 역시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비근무일에도 여성이 더 많은데, 이는 가사노동시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다.

〈표 8〉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성별 생활시간배분 차이(비근무일)

	남 (N=312)	여 (N=386)	격차 (남-여)	T 값
유급노동	26	9	17	3.111 **
가사	198	383	185	-15.720 ***
총노동	224	392	168	-13.870 ***
여가	422	299	123	10.671 ***
생활필수	794	749	45	5.189 ***

\* P<.05, \*\* P<.01, \*\*\* P<.001

모든 생활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간배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사와 총노동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여가와 생활필수시간은 여성이 더 적다. 다음으로 시간 관련 주관적 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9〉 시간 관련 주관적 인식의 성별 차이(비근무일)

	남성	여성	T값
시간부족감	3.28	3.28	.029
피곤함정도	3.34	3.32	.470
삶만족도	3.20	3.28	-1.147
가사분담만족도	3.46	3.05	4.941 ***
시간활용만족도	3.28	3.22	.983

\* p<.05, \*\* p<.01, \*\*\* p<.001

근무일에는 가사분담만족도와 시간활용만족도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비근무일에는 가사분담만족도에서만 차이를 보여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의 만족도보다 더 낮다. 즉,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가사분담만족도는 여성이 더 낮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결과이다. 여성은 출근하는 날이나 집에 있는 날이나 상관 없이 가사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여성의 가사노동분담만족도가 낮은 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아래 표와 같다.

비근무일 생활영역별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직업, 종사상지위, 정기휴일 등의 변수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정기휴일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소득과 종사상지위는 비근무일 생활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위의 표 8에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성별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보다 가사노동시간은 길고 나머

지 유급노동시간, 여가시간, 생활필수시간은 짧다. 연령은 여가시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있어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은 고졸 집단보다 가사노동시간이 길고 여가시간은 더 짧다. 대학원 이상 집단은 고졸 집단보다 가사노동시간이 길고 생활필수시간이 더 짧게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 집단은 사무직 집단보다 여가시간이 더 길다. 마지막으로 정기휴일 변수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집단과 비교할 때 기타집단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고 생활필수시간은 더 짧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비교, 요약해 보면, 우선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생활시간배분은 노동, 여가, 생활필수 모든 영역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근무일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대폭 감소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감소된 시간이 어떤 생활영역으로 분산되고 있는가를 보면, 남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은 133분, 여가시간은 263분, 생활필수시간은 148분 증가, 여가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여성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시간은 135분, 여가시간은 171분, 생활필수시간은 110분 증가하여 여가시간의 증가폭이 가장 크지만, 가사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의 증가폭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비근무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진 만큼 근무일과 마찬가지로 총노동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이는 근무일이건 비근무일이건 기혼취업여성집단의 노동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핵심적인 요인은 가사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시간 관련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여성의 가사분담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은 결과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근무일 그리고 비근무일 4가지 생활영역에 대한 시간배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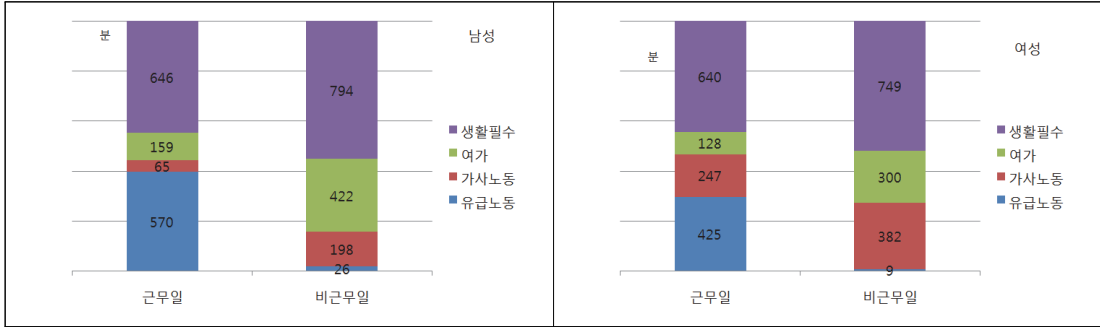
〈표 10〉 생활시간배분에 영향 미치는 변수 (비근무일)

시 간		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생활필수시간
상수항		-2.072	248.409***	329.500***	864.163***
성별 (기준: 남성)	여성	-17.864**	158.303***	-113.751***	-26.687*
연령	연속변수	.672	-1.586	2.801*	-1.887
교육수준 (기준: 고졸)	중졸	9.271	18.836	29.461	-57.568
	전문대 및 대졸	.938	46.066**	-33.901*	-13.104
	대학원이상	5.032	79.126**	-46.797	-37.361*
월평균소득 (기준: 100~ 200만원미만)	100만원미만	8.243	9.602	10.474	-28.319
	200-300만원미만	4.915	-13.774	1.408	7.451
	300-400만원미만	10.183	-29.873	-3.484	23.174
	400만원이상	12.508	-37.137	-3.740	28.369
직업 (기준: 사무직)	관리전문직	7.110	-23.166	30.014*	-13.957
	서비스판매직	-15.489	10.447	6.375	-1.333
	기능직	-17.484	-3.188	13.989	6.682
	단순노무직	-14.934	-27.115	30.471	11.578
종사상지위 (기준: 상용종사자)	임시근로자	8.572	9.343	-12.854	-5.062
	일용근로자	8.112	11.082	-29.256	10.06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567	9.692	-13.623	13.49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720	5.559	-34.299	26.020
	무급가족종사자	10.047	-20.866	-25.624	36.443
정기휴일 (기준: 일주일에 2일)	1주일에 1일	-6.631	-27.731	24.361	10.001
	1주일에 1일&토요격주	-5.743	-27.542	45.944	-12.659
	2주마다 1일	-2.659	-45.090	22.029	25.720
	수시로됨	1.388	38.208	-16.706	-22.890
	기타	-15.069	90.816**	-4.852	-70.895**
F값		1.690*	12.861***	6.221***	3.033***
Adj. R <sup>2</sup>		.022	.281	.147	.063

\* p<.05, \*\* p<.01, \*\*\* p<.001

〈그림 1〉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과 여성의 근무일/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

단위: 분



위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근무일/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 실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가사노동과 여가에서 그 차이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비근무일은 대폭 줄어든 유급노동시간은 생활필수시간과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여성의 경우는 비근무일 줄어든 유급노동시간이 생활필수시간, 여가시간 뿐 아니라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비근무일에 남성보다 여가의 증가폭이 적은 대신 가사노동의 증가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4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근무일과 비근무일 생활시간배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에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총노동시간이 근무일 하루 평균 40분 가량 더 많다. 남성과 여성의 생활필수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비근무일 유급노동시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노동시간 자체가 남성보다 훨씬 길고, 여가시간은

남성에 비해 매우 짧다. 미취학 자녀를 두고 맞벌이를 하는 취업여성의 경우, 미취학 자녀로 인한 가사노동시간의 요구가 커지고, 이로 인해 총노동시간이 길어지며 결과적으로 여가시간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생활시간배분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문제 제기해 오던 생활시간사용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2014년 자료에서도 확인하였다. 이는 가정 내 성별역할분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여성취업율이 50%를 상회하는 현재까지도 이러한 현상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이고, 앞으로 맞벌이 가정은 계속 보편화될 것으로 보이는 현재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성의 경우 특히 근무일과 비근무일에 긴 가사노동시간이 여가나 생활필수시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근무일과 비근무일 모두 여성의 가사노동분담만족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결과로 연계된다. 따라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결국 다른 가족원, 그 중에서도 남성의 가사 및 돌봄참여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남성 개인적 차원에서 양성평등한 역할분담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장시간 근무 관행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는 것으로, 전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친화적 문화로 전환되어야 하는 매우 장기적이고도 거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2014년을 일·가정 양립의 해로 지정, 일·가양득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2014),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인증제, 가족사랑의 날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제도적 차원의 사업들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관련 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 성과평가 등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뿐 아니라 중소기업, 시민단체,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일터가 가족친화적 제도를 받아들이고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일터별·근로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급노동시간은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그리고 생활필수시간과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유급노동-가사노동-여가-생활필수에 대한 시간배분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상태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 시간을 많이 배분하면 그만큼 다른 영역에 투입되는 시간량이 감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송혜림, 2012), 시간배분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일·생활의 균형상태를 포착하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유급노동시간이 길어지면 나머지 시간이 감소될 수 밖에 없고, 이로써 가사노동과 돌봄, 여가, 개인유지 등과 같은 재생산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일과 생활 간의 불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근무일에 남성 근로자는 유급노동시간이 길고, 여성 근로자는 유급노동시간에 더하여 가사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비근무일에 남성은 여가시간을 대폭 늘이지만, 여

성은 주 중에 못 다 한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생활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남성은 장시간 노동이 그리고 여성은 긴 가사노동이 일과 생활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시간배분을 통한 일·생활 균형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 항목에 일·생활 균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 혹은 일·생활 균형 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써 시간조사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생활시간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도 유용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따라서 각 영역별 시간 배분의 불균형성과 관련된 성별 격차를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는데, 특히 위에서 강조한 바,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는 여성의 돌봄부담 경감, 여가시간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남성 자신의 가족역할 확대를 통해 일·생활의 균형에 이르게 하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독일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 및 여가생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최균호, 2005)에 따르면, 남성 가장의 근로시간 감축은 남성 자신의 여가시간 증가, 가사노동 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는 여성의 직업활동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양성평등한 역할분담이라는 맥락에서 남성의 가족역할 확대 및 이를 통해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가족역할확대는 여성은 물론 남성의 일·생활 균형을 회복하는 결정적 단초라는 점에서(김외숙 외, 2015), 남성의 양성평등한 가족역할수행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4년 이후 지역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초기부터 남성 대상 아버지 교육이 보급되고 있으며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교육이 병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전달체계 간 네트워크를 통



한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 등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여 남성들이 아버지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수월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생활시간배분을 분석하여 성별 차이, 근무일과 비근무일의 차이 및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가 계속 강조해온 바와 같이 미취학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은 돌봄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써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매우 큰 시기이다. 특히 여성의 돌봄 및 가사노동시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행복도를 분석한 송혜림(2015)의 연구에서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을 기본으로 아이돌보미, 친인척 등을 통해 간헐적인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불규칙성으로 인한 일상적인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다양화, 긴급한 상황에서의 보완 서비스, 직장생활의 메카니즘에 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시설운영 등에 대한 요구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맞춤형 정책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복지선진국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선택의 다양성 존중, 체감성 향상 등과 같은 방향성에 주력하여,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의 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비근무일 가사노동의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취업여성의 현실을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 비근무일에 미취학 자녀의 돌봄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시켜 충분한 여가와 생활필수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에너지를 재생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프로그램, 쉬는 토요일의 돌봄 및 체

험활동 지원 서비스 등은 그런 맥락에서 보육시설의 돌봄서비스를 지지하고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통해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집단의 특성과 환경적 요소, 예컨대 근무형태와 직업, 자녀연령,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의 설계와 제도적 서비스 개발의 방향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를 두고 맞벌이를 한다고 응답한 취업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자료를 분석하였는데, 후속연구를 통해 맞벌이부부 단위의 생활시간배분 실태와 유형, 일-가정 양립의 차이, 이에 영향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송혜림·유아량, 2013; 송혜림, 2014)에서 밝혀진 바, 미취학자녀를 둔 시기 뿐 아니라 학령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역시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이 크게 경감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를 통해 이 시기의 집단을 대상으로 시간배분의 유형, 시간만족도, 성별 차이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의 생활주기에 따른 시간배분의 차이, 일-생활 균형, 이에 영향 미치는 요소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맞춤형의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는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생활시간연구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므로, 이러한 후속연구들은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의 생활시간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시간배분과 일-생활 균형을 연계시킴으로서 정책 설계 및 제도적 서비스 도출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시간연구결과의 유용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권기현·전명진(2014). 생활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수도권 맞벌이 가구의 성별 생활시간 및 이동수단 차이 분석. 지역연구, 30(3), 109-129.
- 2) 김동식·김영택·정진주·최인선(2013). 맞벌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 갈등과 건강영향 연구: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 김복수(2011).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변화: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4(2), 185-218.
- 4) 김소영·진미정(2015).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 취업 남성의 주말 시간사용 유형화와 유형별 시간사용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71-88.
- 5) 김외숙·조희금·송혜림(2015). 기혼취업자의 일생활 균형. 통계청 「2015 생활시간조사 국제워크숍」: 생활시간조사 결과의 정책적 의의」 자료집.
- 6) 김주희·이기영(2015). 맞벌이 부부의 시간배분을 통해 본 일-생활 유형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101-125.
- 7) 김진옥·고은주(2014). 맞벌이 부부의 가정 내 무급노동시간 영향요인 국가비교: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사회복지정책, 41(2), 185-212.
- 8) 김진옥·최영준(2012). 일-가족 시간배분에 따른 가구유형과 변화-퍼지센 이상형 분석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4(2), 31-54.
- 9) 남수정·유현정(2006). 취업주부의 시장소득에 따른 생활시간 분석. 한국생활과학회 2006 하계 학술발표논문집.
- 10) 문숙재·윤소영(200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13-220.
- 11) 박은정·이성림(201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 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97-111.
- 12)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2014). 제 22차 가족정책포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개선” 자료집.
- 13) 서미숙(2016). 성별에 따른 통근시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시간조사(Korean Time use Survey)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18, 5-36.
- 14) 손문금(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5, 239-287.
- 15) 손애리(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16) 송혜림(2012). 남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요구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18.
- 17) 송혜림(2014). 기혼취업여성의 일-가정 균형 실태: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41-59.
- 18) 송혜림(2015). 일-가정 균형감과 행복도: 영유아기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81-99.
- 19) 송혜림·유아량(2013).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정책을 통해 본 일-가정 양립 실태에 대한 연구: 학령전기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4), 101-125.
- 20) 송혜림·김외숙·조희금(2015). 기혼취업남녀의 일-생활 균형. 통계청 2015 생활시간조사 국제워크숍 ‘생활시간조사 결과의 정책적 의의’ 자료집.
- 21) 유성용(2008). 가구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동시간-1999/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3), 28-62.
- 22) 이동훈·이호진·정민근(2011).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생활시간 분석: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대한산업공학회지, 37(2), 105-117.
- 23) 이승미·이현아(2011). 맞벌이 임금근로자 남

- 녀의 생활시간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9(5), 81-96.
- 24) 이영환·이수재(2007).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 주부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200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10(1), 19-25.
- 25) 이재림·손서희(2013).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 갈등: 직장 및 자녀양육 관련 자원과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93-114.
- 26) 이창순(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40(2), 29-54.
- 27) 장원봉(2002). 생활시간조사를 통한 실업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실업자의 교체활동을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59, 106-132.
- 28) 정경희(2001).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실태. 보건복지포럼, 61, 56-70.
- 29) 정재기(20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형태-생활시간조사의 활용. 한국사회학, 45(5), 197-225.
- 30) 조미라(2016). 여가시간 불평등 연구: 1999~2009년 성별 여가시간양의 변화 및 불평등 요인분석. 한국인구학, 39(1), 29-57.
- 31) 조미라·윤수경(2014). 한국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연구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44, 5-30.
- 32) 조보성(2006).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한 직장인들의 5년간 여가스포츠 활동과 참가시간의 변화 분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1), 125-135.
- 33) 조성호(2016). 부부의 시간배분 결정요인: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9(1), 57-79.
- 34) 주은선(2014). 노동인가, 돌봄인가, 여가인가? -전일제 임노동자 맞벌이 부모의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영향과 학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45(3), 5-34.
- 35) 주익현(2015a). 계층별 맞벌이 여성의 시간부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논집, 46(1), 111-135.
- 36) 주익현(2015b). 맞벌이 여성의 소득기여도가 가사 시간량에 미치는 효과: 2004년, 2009년, 2014년 시계열적 변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논집, 46(2), 49-68.
- 37) 지현진(2012). 2009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근거로 노년층의 여가프로파일. 한국노년학, 32(3), 675-687.
- 38) 차승은(2011). 노동시간에 따른 시간압박과 여가제약-건강행동의 선택 혹은 희생?. 한국인구학, 34(2), 65-90.
- 39) 채화영·이기영(2013).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 경험. 대한가정학회지, 51(5), 497-511.
- 40) 최균호(2005). 독일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 및 여가 생활의 변화-독일 폴크스바겐사의 '주 28.8시간 근무제'를 보기로. 독일어문학, 30, 387-407.
- 41) 최중후·이동희·소선하(2006). 생활시간소비 소비형태에 따른 피로도에 대한 연관성 분석. 한국조사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42) 통계청(2015). 2014년 생활시간자료.
- 43) 한영선·윤소영(2009). 미취학 자녀를 둔 도시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2), 81-95.
- 44) OECD(2015). How's Life? 2015.
- 투 고 일 : 2016년 5월 31일
  - 심 사 일 : 2016년 7월 5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7월 29일